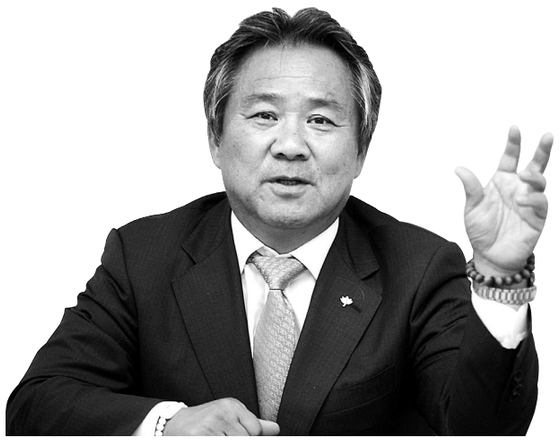


"300개 末寺 목소리 종단에 전하겠다"

Interview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연임한 이기흥 회장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총 138곳의 사찰을 돌아다녔습니다. 각 사찰에서 스님과 신도회의 얘기를 빠짐없이 정리한 노트만 5권입니다. 앞으로 총 300개 말사 목소리를 모아 백서를 발간하고, 종단에 한국불교 풀뿌리 의견을 전할 것입니다."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사진 위〉의 연임이 결정됐다. 이 회장은 6월 30일 열린 대의원총회서 제26대 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그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이 회장이 전국사찰을 돌며 감동받은 것은 공양주는 없어도 신도회는 여법하게 조직돼 있다는 점이다. 가는 곳마다 스님과 신도회는 반갑게 맞아주고, 운영상 어려운 점과 종단 발전에 대한 의견을 스스럼없이 털어놨다. 강행군으로 지칠법한 그에게 말사 의견은 감로수 같았다.

"목표한 사찰 중 거의 절반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불교를 이끌고 있는 것이 말사 신도회라는 걸 느꼈습니다. 98%의 사찰이 신도회가 구성돼 있었고,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역량결집에 100% 공감했습니다."

이 회장은 8월 12일까지 나머지 160여개 사찰을 전부 순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루에 3~4개 사찰을 다녀야할 정도로 빡빡한 일정이다. 이를 통해 말사 의견을 백서로 발간, 불교발전을 위해 종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는 전국 모든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공간을 만들어 소통에 나설 것을 밝혔다.

"행복바라미 SNS통신원이 1300명입니다. 웹진회원 또한 3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가진 능력을 온라인공간에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장려해 많은 불자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불자가 글을 쓰면 불자변호사들이 자문해줄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창구를 만들 겁니다."

이 회장이 불자들을 위한 온라인공간을 계획한 것은 역량결집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재정자립 또한 큰 부분으로 작용한다. 그는 온라인공간의 틀이 어느 정도 잡힌 뒤 광고·홍보 마케팅 등을 실시하면 중앙신도회 재정자립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중앙신도회는 회장 개인 역량에 따라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누구든 신도회장으로서 포부를 펼칠 수 있도록 기반을 닦겠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이 회장은 지난 4년간 이어온 행복바라미를 개신교계의 '자선냄비'처럼 브랜드화 하겠다고 다짐했다. 불교가 대사회구호에 앞장서고 이웃과 함께한다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다. 그는 이를 위해 행복바라미 모금함을 300개 말사에 설치하고,

말사 의견 모아 백서 발간
불자위한 온라인 공간 마련
행복바라미 '브랜드화' 도

1년간 모금한 뒤 개봉해 지역 저소득층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복바라미의 모금 기본 취지는 지역에서 모연한 기금을 지역에 회향하는 것입니다. 사찰에서 1년간 모금한 뒤 신도들과 함께 개봉해 주위의 이웃을 돕는다면 그 자체가 무한한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스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 반성과 함께 자긍심 고취에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찰에서 '진작부터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회장은 현재 개별적으로 각 말사에서 실천하고 있는 나눔을 행복바라미와 연계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 '행복바라미 ○○사장학금'과 같이 전국 불자들의 역량결집을 도모해 불교의 위상을 높인다는 취지다. 각 말사의 실적을 중앙신도회 공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불교의 가장 큰 문제가 각자도생"이라고 못 박은 뒤 "결코 그럴 일은 없다. 불교와 행복바라미를 연결시켜 전국민이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뢰를 쌓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회장은 300개 말사 순례를 마치고, 8월 20~21일 대전 인근에서 각 교구본사 및 말사 신도회 임원들을 모아 대규모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서 재가불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자로서의 자세를 다지는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한편 취임식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연임하는 사람에게 취임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새로 구성되는 회장단과 등산이나 한번 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종정協, 제2회 호국영령위령대재

6월 26일 호국연무사서… 5000여 장병 동참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이사장 월인, 대한불교승가종정)는 6월 26일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제2회 호국영령위령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5000여 장병들이 동참했으며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범패, 바라, 살풀이 등 불교의식이 진행됐다.

종정협의회에서는 2년 전 제1회 호국영령 위령 천도재를 봉행한 바 있다. 종정협의회는 향후 6월에 위령재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선종, 총무원장 이취임식

6월 25일 울산 남천암에서… 200여 명 참석



대한불교선종은 6월 25일 울산 남천암에서 '3·4대 총무원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이취임식에는 종정 효담 스님을 비롯한 종단스님들과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신임 총무원장 무초 스님은 취임사에서 종단발전의 초석을 닦은 전임 총무원장 정관 스님의 업적에 감사를 표한 뒤 "사회봉사와 대중포교로 종단발전에 나서고, 참신한 인재를 양성해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호섭 기자

"거짓의 시대, 만해 향기 그리워라"

선학원, 만해 스님 72주기 추모다례



(재)선학원(이사장 법진)은 6월 29일 서울 AW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서 '거짓의 시대, 만해를 생각한다'를 주제로 만해 스님 72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오른쪽〉

이 자리에는 이사장 법진 스님을 비롯한 선학원 스님들과 영담 스님, 정세균 국회의장, 한영숙 여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추모법어를 통해 "만해 스님의 고귀한 뜻이 이 시대에도 영롱하게 빛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각성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선학원도 만해 스님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추모사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내수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서민들은 더 이상 졸라맬 허리도 없다"면서 "하지만 만해 스님의 독립운동 정신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신 원생보살 사상을 되살려 실천한다면 오늘의 총체적 난국은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이후에는 '2016 만해 한용운 추모 전국 청소년 문예전 시상식'과 추모공연 등이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구성훈(장충고 1)·이강(중앙고 2) 학생이 각각 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소설 '총성'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최우수상 4명과 우수상 4명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호섭 기자

굿월드자선은행, 필리핀 교육지원

6월 29일, 데이케어센터 제3회 입학식 개최

국제구호단체 굿월드자선은행(이사장 양종현)은 6월 29일 필리핀 라구나주 산페드로시 사우스빌 쓰레기 마을의 '굿월드 스테판 데이케어센터'와 까비떼주 망가한시 제너럴 트리판자촌 마을의 '굿월드 지나 데이케어센터'에서 현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각각 제3회 입학식을 개최했다.〈사진 오른쪽〉

이번 입학식에는 각각 180명과 35명의 신입 원아들이 입학했다. 입학식에는 양종헌 이사장을 비롯해 최선일 이사, 남정심, 송기출, 손은주 등 15명의 한국 측 인사들과 파티마 산페드로시 교육국장, 학부형 등이 참석했다.

양종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굿월드는 필리핀 어린이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입학식에서 최선일 이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자문위원)는 어린이들



에게 책가방 210개를 비롯한 교복과 색연필, 문구 등을 후원했다. 1666-9579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행-포교사단, 기부 활성화 나서

6월 27일 MOU… "나눔활동 함께"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윤기중)과 6월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108day' 및 쪽방촌 연탄지원봉사 '아이연탄맨' 등 함께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銀海寺 祖室 包山堂 慧印大宗師 永訣式 奉行에 대한 感謝의 말씀

大韓佛教曹溪宗 第10教區 本寺 銀海寺 祖室이시며 濟州 藥泉寺 會主이신

包山堂 慧印大宗師께서 世緣이 다 하시어 6월 27일 永訣-茶毘式을 大韓佛教曹溪宗 第 10教區本寺 銀海寺 教區葬으로 嚴肅히 봉행하였습니다.

遠路에 찾아와 큰 스님의 마지막을 함께 해 주신 宗團의 元老 大德 스님들과 제방의 스님을 비롯한 四部大衆께 感謝의 禮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 올림이 道理인줄 아오나 우선 紙面으로 인사 올림을 惠諒하여 주시기 바라며 韓國佛教의 中興을 위해 獻身하신 큰 스님의 遺志를 받들어 더욱 修行 精進하겠습니다.

불기 2560년 6월 29일

49재 안내(매주 수요일)

초재 : 6월 29일-제주 약천사
2 재 : 7월 6일-경주 불굴사
3 재 : 7월 13일-제주 약천사
4 재 : 7월 20일-제주 약천사
5 재 : 7월 27일-충주 석종사
6 재 : 8월 3일-제주 약천사
막재 : 8월 10일-영천 은해사

問議 및 連絡處 : 銀海寺 ☎ 054.335.3318
藥泉寺 ☎ 064.738.5000

大韓佛教曹溪宗 第10教區本寺
銀海寺 祖室 包山堂 慧印大宗師 葬儀委員會 委員長 雲谷 頓觀 合掌

包山門徒代表 德照 九拜